

현대적 관점에서 본 한글

이 기 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

한글은 15세기 중엽에 국어의 표기를 위하여 창제되어 오늘날까지 쓰여 왔다. 지금까지의 한글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문자로서 그 지위를 굳혀 온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문자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마다 우리는 씁쓰레한 느낌을 금할 수 없다. 漢字의 시대가 너무나 오래 이어 온 것이다. 그런데, 실은 2천 년이란 긴 기간보다도 이 문자의 기본 성격이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漢字는 중국어의 표기를 위하여 만들어진 문자로서 그와는 구조가 판이한 한국어의 표기에 쓰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漢文으로 문자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입으로 하는 말과 글로 쓰는 말이 서로 다른 “言文二致”가 빚어지게 된 것이다.¹⁾ 우리 옛사람들이 겪은 문자 생활의 어려움은 오늘의 우리로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혹시 우리가 英文만으로 문자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면 그 어려움을 어림 쳐 짐작할 수 있을 듯도 하다.

1) ‘言文二致’란 말은 1909년 12월 28일에 國文研究所가 學部大臣에게 제출한 最終 報告書에 보인다. 李基文(1970) 所載 影印 6면에 “言文이 二致하고”, 310면에 “言文이 二致됨으로” 등 참고. 옛글이 오늘의 말과 같지 않음도 ‘言文二致’라 한 예가 보인다. 312면, 325면 참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게 된 근본 동기가 이 言文二致의 극복에 있었음은 길게 말할 것도 없다. 御製序의 첫머리에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 不相流通”(나라말씀이 중국과 달라 漢字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이라 한 것은 바로 이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 민족의 먼 조상이 漢字를 받아들인 뒤에 그것을 손질하여 우리 말 표기를 하였던다면, 그것이 큰 불편 없이 사용되어 왔더라면,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의 發想을 하지 않았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큰 불행과 불편이 위대한 발명의 어머니임을 새삼 깨닫게 한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모든 위대한 창조적 업적이 그런 것처럼, 하나의 기적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이 문자를 만드는 데는 그 당시 우리 나라에 알려진 여러 알파벳 계통의 문자들(梵字, 위굴 문자, 티베트 문자, 파스파 문자 등)을 보고 이와 비슷한 성질의 체계가 한국어의 표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위에 든 외국 문자들 중의 어느 하나를 택하여 조금 손질하여 한국어 표기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은 점이 우리의 주목을 끈다. 이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요 世界 文字史의 通例였음을 감안할 때 더욱 특이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세종대왕은, 한국어의 문자화를 이룩함에 있어,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들 생각을 하였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분명히 밝히기에는 오늘날 남아 있는 기록들이 너무나 짧다. 오늘날 남아 있는 가장 중요한 기록은 ‘訓民正音解例’, 그중에서도 ‘制字解’인데, 한글 창제의 기본 발상에 대해서는 극히 막연한 몇 귀절이 있을 뿐이다.²⁾

今正音之作 初非智營而力索 但因其聲音而極其理而已 理既不二 則何得不與天地鬼神同其用也. 이제 정음을 만들도 애초부터 슬기로써 마련하고 애씀으로써 찾은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성음을 바탕으로 하여(성음의 원리에 따라서) 그 이치를 다한 것 뿐이다. 이치가 이미 둘이 아니니 어찌 천지 귀신과 함께 그 용(用)을 같이 하지 않겠는가.

吁 正音作而天地萬物之理咸備 其神矣哉 是殆天啓聖心而假手焉者乎. 아아, 정음이 만들어짐에 천지 만물의 이치가 다 갖추어지게 되니, 그 참 신기스러운 일이구나. 이것은 거의 하늘이 성인(聖人, 즉 성왕인 세종)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하늘의) 숨씨를 성인에게 빌려 주신 것이로구나.

2) 번역은 姜信沆(1987)에서 옮겨 적는다.

이렇듯 ‘制字解’는 한글 제작을 신비화하고 있음을 본다. 다만 聲音의 이치를 다한 것이라 한 대목이 우리의 눈길을 끌 뿐이다. 실제로 ‘制字解’의 28자에 관한 설명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기도 한다. 이 설명은 성음의 이치를 주로 중국에서 발달한 音韻學에 기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세종대왕이 중국 음운학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음은 여러 글에 나타나는데, ‘解例’를 주의 깊게 읽어 보면 과거의 연구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독자적인 연구를 하였음이 역력히 드러난다. 이것은 아마도 이 이론을 한국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중국어만을 대상으로 했던 중국의 음운학 이론을 한국어에 적용함으로써 하나의 일반 음운 이론을 발전시키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 음운 이론은, 그 당시로서는, 동양과 서양을 통틀어 유례가 없는 높은 수준의 것이었다. 세종대왕이 발전시킨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中聲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音節의 二分法을 기본으로 했던 중국 음운학에는 中聲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 이에 관한 이론은 세종대왕이 처음으로 수립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세종대왕이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 구상을 하게 된 것은 음운학에 관한 깊은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서 文字學도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은 문자[漢字]의 나라로서 이에 관한 학문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세종대왕은 이 방면의 이론도 널리 섭렵하여 그 알짜를 추려서 새 문자의 창제에 적용한 것이다.

요컨대, 세종대왕의 학문의 특징은 모든 것을 그 근본에 있어서 파악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한글 창제의 기초가 됨으로써 한글은 일찍이 인류가 만든 가장 독창적인 문자 체계가 된 것이다. 세종대왕은 여러 방면에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한글 창제를 통하여 우리 민족과 인류의 문화에 영원히 남을 金字塔를 세운 것이다.

위의 논술에서 한글 창제와 관련하여 세종대왕의 이름만을 들어 왔는데, 이것은 한글이 문자 그대로의 親制라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申叔舟를 비롯한 학자들이 한글 사업에 참여한 것은 한글 창제 이후의 일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이기문(1992)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는데, 그뒤 매우 흥미 있는 새로운 자료를 李家源(1994)이 소개한 것이 있어 여기에 덧붙여 둔다. ‘竹山安氏大同譜’에 ‘貞懿公主遺事’가 실려 있는데 그 三則 중 第二則이 다음과 같다고 한다. 李家源(1994)의 번역을 덧붙인다.

世宗憫方言不能以文字相通 始製訓民正音 而變音吐着 猶未畢究 使諸大君解之 皆

未能 遂下于公主 公主即解究以進 世宗大加稱賞 特賜奴婢數百口. 세종이 방언이 문자로 더붙어 서로 통하지 못함을 딱하게 여겨 비로소 訓民正音を 창제할 제, 變音과 吐着을 오히려 다 연구하지 못하여 諸大君으로 하여금 풀게 하였으나 모두 하지 못하였다. 드디어 公主에게 내려 보내었다. 公主는 곧 풀어 바쳤다. 세종이 크게 칭상하고 특히 奴婢 數百口를 下賜하였다.

정의 공주는 세종의 둘째 따님으로 延昌尉 安孟聃에게 출가하였는데 그 족보에 이런 소중한 글이 실려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한글 창제 중에 있었던 逸話を 전한 거의 유일한 기록으로, 세종이 한글 창제를 은밀히 진행하였고 간혹 답답할 때에는 至近의 아들 딸들과 의논한 情景를 눈에 보는 듯하다. 한글을 만든 뒤 첫 사업이었던 韻會 번역을 東宮, 首陽大君, 安平大君에게 감장토록 한 사실과 '洪武正韻譯訓'과 '直解童子習'의 序文에 文宗이 한글 창제의 일을 도왔음을 말한 사실을 들어 왕세자를 비롯한 아들들이 세종의 말뚝이 되었음이 지적된 바 있는데(이기문 1992, 7면), 이제 공주까지 여기에 끼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2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나라 학자들이 많이 논하였고 특히 1940년 '訓民正音'(解例本)이 발견된 뒤에는 목소리를 한층 더 높여 왔다. 과학적인 증명보다도 감상적인 예찬이 많았고 판에 박은 듯한 표현을 되풀이함으로써 설득력이 크지 못했음이 사실이었다. 한글의 독창성에 관한 주장이, 우리로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국제 학계에 먹혀 들지 않은 데는 우리 나라 학자들의 책임도 없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이 국제 학계, 특히 歐美 학계에서 인정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60년대에 들어서의 일이다. 여기서 우선 큰 몫을 한 것이 미국 하바드 대학의 교과서로 출판된 라이샤워(E. O. Reischauer)와 페어뱅크(J. K. Fairbank)의 共著(1960)였다. 이 책의 한국에 관한 부분(제10장)에서 라이샤워는 15세기 한국의 문화에 대하여 논하면서 한글은 아마도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모든 문자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체계일 것이라고 하였다.(Han'gŭl is perhaps the most scientific system of writing in general use in any country.)

이보다 4년 뒤(1964)에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포스(Frits Vos)가 향가, 이두, 한글을 포함한 우리 나라 문자의 역사와 언어의 역사를 다룬 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들은 미국 중부의 11개 대학이 참여한 위원회(Committee on

Institutional Cooperation, CIC)가 1963년 여름에 연 세미나에서 발표된 중국, 일본, 한국의 언어와 문자에 관한 논문들을 모은 책(J. K. Yamagiwa 편, 1964)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한국 문자: 이두와 한글’(Korean Writing: Idu and Han’g’ul)에서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알파벳을 발명하였다.”(They invented the world’s best alphabet!)고 했던 것이다.(31면) 이것은 그 당시의 구미 학계의 분위기에서는 매우 대담한 발언이었다. 라이샤워의 글에 나오는 ‘아마도’(perhaps)가 없어진 대신 감탄 부호가 있음이 우리의 눈길을 끈다.

이 발언은 그대로 묻혀 버렸을지도 모른다. 위의 논문집은 동양의 언어와 문자에 관심이 있는, 극히 한정된 수의 학자들 사이에만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의 작은 돌풍이 일어났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보는 미국 언어학회 회지(Language 42권 1호, 1966)에 시카고 대학의 맥콜리(J. D. McCawley)가 이 논문집의 서평을 쓰면서 포스의 말에 전적인 동의를 표한 것이다. 포스가 최상급형을 쓴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고 그것은 벨(A. M. Bell)의 可視 言語 記號(Visible Speech, 1867)보다 4백 년이나 앞선 것임을 지적하였다.(Vos’s use of the superlative has much justification, since the han’g’ul anticipates by over 400 years the idea of Alexander Melville Bell’s ‘Visible Speech’.) 한글은 각음의 음성적 특징을 시각화함에 있어, 벨의 그것만큼 철저하지는 못하다 해도,³⁾ 자못 높은 수준의 調音 音聲學의 分析의 기초 위에서 창조적으로 만든 알파벳으로 높이 평가한 것이다. 끝으로 그는 한국에서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에 유의하였다. 실제로 맥콜리는 개인적으로 한글날을 명절로 지켜 왔는데, 한글날이 공휴일이 아닌 요즈음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

한 중진 학자의 짙막한 글이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할 줄은 미처 몰랐다. 이 서평이 나온 뒤에 간행된 言語學 概論書들의 文字에 관한 章에 한글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주목되지만,⁴⁾ 세계 文字史 내지 文字論이 한글의 새로운 자리잡음으로 그 면목을 일신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것을 대표하는 저서로 샘슨(Geoffrey Sampson)의 ‘문자 체계’(Writing Systems, 1985)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제3장에서 인류의 초기 문자들, 4장에서 音節文字, 5장에서 子音文字, 6장에서 音素文字(회랍·로마 알파벳)를 논한 뒤에 7장에서 資質 體系(featural system)라

3)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 한글과 벨의 기호 사이의 유사성을 처음으로 지적한 安白山(1926)은 한글이 도리어 정치하고 결점이 적다고 평한 바 있다. 이기문(1988) 참고.

4) 예를 들면 D. Bolinger(1968) 170-171면, R. Burling(1992) 404-407면, 등.

하여 한글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자질 체계란 이 책의 저자가 만든 새로운 술어다. 종래의 분류 체계로서는 다른 어느 문자와도 다른 한글의 특성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고민한 끝에 새로운 체계를 설정한 것이다. 종래 음운론에서 몇 개의 자질의 묶음으로 음소를 정의하여 왔는데, 한글 글자들이 이 자질을 표시하고 있음에 착안하였던 것이다.

샘슨의 이론은 우리 나라 학자들에게 하나의 큰 교훈을 주는 것이었다. 우리 나라 학자들은 구미의 이론의 틀을 받아들여 그 틀에 사실을 맞추려고 애써 왔다. 이것만으로도 힘에 겨웠으니 그 틀을 벗어나는 일 따위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알파벳과는 확실히 다른 면이 있음을 느끼면서도 이 느낌을 이론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샘슨은 한글 체계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의 이론의 틀로는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틀을 바꾸고 말았던 것이다.

샘슨의 자질 체계의 이론이 한글의 설명에 가장 합당한 것인가. 이 이론이 한글의 특질의 일면을 포착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한글의 특질을 남김없이 설명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한다. 앞으로의 연구는 이 점을 차분히 깨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이켜 보면, 한글 글자의 모양이 알려진 18세기 말엽, 19세기 초엽 이래, 그곳 학자들은 줄곧 한글을 어떤 다른 문자의 계통을 끄는 것으로 믿어 왔다. 이것은 그들 자신의 文字史에서 얻은 관점을 한글에도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현대 학자들은 한글의 독창성을 계속 주장하여, 한 때는 편협한 민족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하였다. 60년대에 들어 구미 학자들이 한글의 독창성을 인정함에 이르러 우리의 오랜 숙원이 풀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외국에서 한글의 특성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 나타남으로써 우리의 학문하는 자세에 큰 결함이 있음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3

19세기의 마지막 10년은 한글이 우리 나라 문자 생활의 전면에 떠오른 초창기로서, 사실상 한글 표기의 중요한 문제들이 거의 다 등장했고 구체적인 시안들이 제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중에서 띄어쓰기와 고유 명사 표시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띄어쓰기가 없었다. 諺解나 이야기책(古典小說)에서도 띄어쓰기가 없었는데 甲午更張 이후에 圈點과 빈칸⁵⁾ 의한 두 띄어쓰기의 방안이 나타난 것이다.

권점 띄어쓰기는 '獨立誓告文'(1894년 12월 12일)에 보인다. 이 글은 國文, 美文, 國漢文의 셋으로 작성되었는데, 國文과 漢文에 흑점이 찍혀 있음을 본다. 新訂尋常小學(1896)과 이봉운의 '국문정리'(1897)에는 圈圈(둥그라미)이 쳐져 있음을 본다. 주시경의 저서들을 보면 그가 띄어쓰기에 많은 신경을 썼음을 알 수 있는데 '월남망국소'(1907) 등 빈칸 띄어쓰기를 한 것도 있으나 '국문초학'(1909)에는 흑점을, '국어문법'(1910)에는 권환을 썼고 '말의 소리'(1914)에 와서는 흑점, 권환과 아울러 겹침표(>)를 썼음을 본다. 그리고 권환은 위치를 달리하여 표시한 것이 주목된다. 매우 정밀하게 형태론적, 통사론적 사실들을 분석하여 표시한 것이다.⁵⁾

이에 대하여 빈 칸 띄어쓰기는 무엇보다도 '독립신문'이 채택함으로써 널리 보급되었다. 이것이 영어를 비롯한 서양 언어들의 맞춤법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실제로 영국 공사관의 스코트가 쓴 '언문말칙'(1887)과 언더우드의 '韓英文法'(1890)을 비롯한 서양 선교사들의 책에서 빈 칸 띄어쓰기의 예를 볼 수가 있다. 미국에서 영어의 빈 칸 띄어쓰기를 익힌 서재필이 국어에서도 이 방법을 택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하겠다. 그는 '독립신문' 창간호의 '논설'에서 "귀절을 제여" 쓸 것을 주장하여 이를 시행 하였고 같은 신문 2권 92호(1897년 8월 5일)에 실린 국문에 관한 '논설'⁶⁾에서도 옥편(사전) 편찬과 함께 빈 칸 띄어쓰기를 가장 힘주어 말한 점으로 보아, 그가 이 방법에 각별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서서 위에 든 띄어쓰기의 두 방법 중에서 빈 칸 띄어쓰기가 점차 세력을 얻어 드디어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이것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두 가지 사실을 덧붙여 둔다. 첫째, 19세기말로부터 띄어쓰기는 주로 순국문체에서 시행되었다. 國漢文混用體는 띄어쓰기를 몰랐었다. 둘째, 띄어쓰기에 있어서는 주시경의 제자들이 스승을 따르지 않았다. 김두봉의 '조선말본'(1916)이 아예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음은 권덕규의 '朝鮮語文

5) 옛날에도 권점법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례로, '龍飛御天歌'는 국문 가사와 漢文 문장에서 귀절에 권환을 쳤다. (이와 형식이 동일한 '月印千江之曲'에 권환이 없음을 지적해 둔다.)

6) 이 논설에 대해서는 이기문(1989)에서 자세히 논하였다.

經緯'(1923)을 비롯하여 그 뒤의 여러 책과 同人誌 '한글'(1927년 7월-1928년 10월)이 빈 칸 띄어쓰기를 한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오늘날 띄어쓰기는 전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그 실상을 들여다 보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신문, 잡지에 이르기까지 다양각색이다. 맞춤법의 규정이 느슨한 것부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간행물이 지킬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립신문'을 보면 오른쪽에 傍線을 그어서 고유 명사임을 표시하였다. 國名이나 地名에는 複線을, 人名에는 單線을 그어서 구별하였다. 그런데 이 신문은 제1권 102호까지만 이 傍線法을 보여주고 그 다음 호부터는 그것을 폐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 傍線法은 중국에서 간행된 '泰西新史'를 學部에서 번역한 國문본(1897)에서도 발견된다. 이 책에서는 國名이나 地名은 오른쪽에 複線을, 人名은 왼쪽에 複線을 그어 구별한 점이 다르다. 이봉운의 '국문정리'(國文正理, 1897)의 傍線法은 '독립신문'의 그것과 같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이 방법이 계승되었다. 최남선이 간행한 잡지 '少年'이 그 일례인데, '靑春'에서는 이것을 하지 않고 있다. '독립신문'과 같은 길을 걸은 듯하여 흥미 있다.

이렇듯 고유 명사의 방선 표시법은 널리 행해지지 않았는데,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附錄 2. 文章 符號)에서 "固有名詞를 表示하고자 할 적에는 縱書에서는 左傍에 單線을 긋고, 橫書에서는 下線을 긋는다."고 규정한 점이 주목된다. 그 방법이 번거롭고 보기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의 개정판에서도 이 규정이 유지되었음은 고유 명사 표시의 필요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요즈음의 간행물들을 보면 고유 명사 표시는 거의 포기하고 있다. 사전도 예외는 아니다. 한글 학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큰 사전'(1947-1957)은 고유 명사에 下線을 그었으나 '우리말 큰 사전'(1992)은 아무 표시도 하지 않고 있다. 간혹 인용부(낫표, 개발톱표)를 한 글자를 보기도 하나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특수한 예로서, 한국판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人名이 처음 나올 때 고딕체로 표기하고 있다.

19세기 말엽에 한글 체계는 상당한 혼란을 보여 그 정비가 절실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1907년에 學部 안에 國文研究所가 설치된 목적은 바로 이 문제의 해결

이었다. 이 연구소에서 1909년 말에 작성한 ‘國文研究議定案’은 “、”자의 존속을 인정하여 25자모 체계를 인정하였다. 이 글자를 뺀 24자모 체계가 주시경을 비롯한 그의 제자들의 개인 저술에서 지켜졌고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에서 마침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생각하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도전이 만만치 않았으니 그 역사를 잠시 더듬어 보는 것도 헛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이 도전은 고유어 표기와 외래어 표기의 두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외래어 표기에서 제기된 도전은 오랫동안 끈질기게 계속되었다.

고유어 표기에서 새 문자의 추가는 모음자에 집중되었다. 이봉운의 ‘국문정리’(國文正理 1897), 이필수의 ‘鮮文通解’(1922)와 ‘정음문전’(1923)⁷⁾을 들 수 있는데, 前者는 “ㅏ”는 長音, “ㅑ”는 短音이라는 그릇된 생각에서 출발하여 종래의 모음字들은 長音字로 보고 短音字를 새로 만든 것으로서 특별히 거론할 가치도 없으나, 後者가 주장한 (1) “ㅑㅑ” 二重母音, (2) “ㅑㅑㅑ”와 (3) “ㅑㅑㅑ”의 三重母音を 표기하기 위한 새로운 合字를 제안한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제 이필수(1923)에서 이들 모음이 든 예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현재의 모음자로 적는다).

(1) 健康, 聖人

섬[島], 범[虎], 적다[小], 언제[何時]

(2) 慶事, 鏡城

연한 고기[軟肉], 변이 났다[變生]

(3) 怨望, 遠視

흰하다[薄明], 훨훨 날는다[飛負]

요컨대, 長音으로 발음되는 “어, 여, 위”의 “어”가 短音의 “어”와 발음이 다른데 유의하여 長音의 “어, 여, 위”에 대하여 새로운 글자를 제안한 것이다. 서울말의 “어” 발음이 長音과 短音의 경우에 그 위치가 다른 李崇寧(1949)을 비롯한 여러 논문에서 거듭 밝힌 바이며 최근의 예로는 俞萬根(1977)에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필수의 주장은 音聲學的으로는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나 음운론적으로는 “어”의 異音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면이 없지 않다. 그리고 요즈음은 서

7) 이 書名에도 아래에 든 二重母音字를 썼으나 편의상 ‘어’로 고쳐 쓴다.

울말에서도 위에 말한 발음의 차이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음을 본다.

24자모 이외의 새 글자의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제기한 것은 서양 고유 명사의 표기에서였다. 이 새 글자는 子音字에 집중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그 가장 이른 예로 ‘대서신스’(1897)를 들 수 있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漢字에 의한 고유 명사 표시가 原音과 동떨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고민한 나머지, 그 卷頭에 ‘人地諸名表’를 붙이게 된 것이다. 이 表는 한글 原音 표기와 中國의 漢字 표기를 대비시킨 것으로 그 당시의 外來語 표기의 예들을 보여 주는 소중한 자료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한글로 표기한 서양 原音が 대체로 영어 발음을 택한 사실이다.⁸⁾ 첫머리에서 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파리스	巴黎	法都
그리스	希臘	國
롬	羅馬	國 卽 府

이 表에서 영어의 f, v, l, th 등의 표기가 각별한 주의를 끈다.

f	프	프랑스	法蘭西	國
		쎄엠포	遮非孫	美使
v	베	뿔테아	福祿特爾	法名士
		베세일스	斐賽	法地
l	르	나포환	拿坡崙	法王
		론돈	倫敦	英都
th	트	노르씨	北海	海
		쎄트릭 힘	伯利恒	猶太地

이 表에는 이밖에도 주의를 끄는 점이 많다. 여기서 길게 논할 여유가 없어 다른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위에 든 예 중에서 파리 서쪽의 도시 Versailles를 표기한 漢字의 “斐賽”는 영어 발음 [və:sai]를, 한글의 “베세일스”는 미국 발음 [varséilz]를 반영한 것으로 흥미깊다.

外來語 표기에 특수한 문자 또는 문자 결합을 쓰려는 이런 경향은 20세기에 들어서도 이어졌음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李鍾極의 ‘모던 朝鮮 外來語 辭典’(1937)은 그 당시의 여러 간행물에서 모은 예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론적

8) 오늘날은 이보다 조금 나아졌으나, 영어 발음을 존중하는 경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으로 이 경향을 지지한 대표적인 예로는 최현배의 ‘한글갈’(1942)을 들 수 있다. 최현배는 광복 이후 문교부의 편수국장으로서 ‘들은 말 적는 법’(1948)에 그의 주장을 담기에 이르렀다. [f] 풍, [v] 뽕, [l] 뼤, [z][ʒ] △, 등.

그러나 조선어학회는 이미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제6장에서 외래어를 표기할 적에는 “새 문자나 부호를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한 바 있었고 실제로 1940년에 결정되고 1941년에 공간된 ‘外來語 表記法 統一案’도 이 원칙을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p]나 [f]는 구별 없이 ‘ㅍ’으로, [b]와 [v]도 ‘ㅂ’으로, [l]과 [r]도 ‘ㄹ’로, [z]와 [ʒ]도 ‘ㅈ’으로 적도록 규정한 것이다.⁹⁾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선어학회(한글 학회)의 원칙과 다른 최현배(1942)의 私案이 1948년에 문교부 안으로 결정되었으나 그뒤 1958년에 발표된 ‘로마자자의 한글화 표기법’에서 현용 24자만을 쓰는 원칙으로 되돌아갔다. 1986년에 공포된 문교부의 ‘외래어 표기법’도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리하여, 외래어 표기를 위한 새 문자의 추가가 없게 되었음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만약 외국어의 원음을 존중하여 새 글자의 추가가 허락된다면, 金敏洙(1973)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마 한글의 字母數는 世界 모든 언어의 全音韻數만큼 늘려서 마련해 놓아야만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110면) 이것은 외래어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 말미암은 것이다. 외래어도 국어 어휘의 일부이므로 당연히 국어에서 발음되는 대로 표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5

위에서 논한 문제들과는 달리, 가로 풀어쓰기는 한글의 글자 모양을 바꾸자는 제안으로 하나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안은 놀랍게도 이미 주시경의 ‘말의 소리’(1914)에 나타난다. 이 책의 맨 끝에 ‘우리 글의 가로 쓰는 익힘’이라 하여 한 면을 채운 것이 있는데 이 글을 해독해 보면 그 마지막 문장이 “가로 글은 쓰기와 박기에 가장 좋으니라”로 되어 있어 주시경이 ‘가로글’을 우리 나라 文字改革의 理想으로 삼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이 가로글은 (1) 1913년에 준 ‘배달 말 글 묶음 서울온몸음’의 ‘맞힌보람’과 (2) 1915년에 준 ‘서울한글배꼽’의 ‘마친 보람’에 실제로 쓰였다. (1)에 찍힌 도장 셋(배달 말 글 묶음, 솔벗매, 한힌샘)도 모두 가로글로 되어 있다. (1)이 ‘말의 소리’가 간행되기 전 해에 준 것임

9) 이 통일안에서 모음 간에서는 [l]을 ‘ㄹㄹ’로, [r]을 ‘ㄹ’로 적어 구별하도록 한 것은 옥에 티라 하겠다.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⁰⁾

이러한 주시경의 생각은 제자들에게 이어졌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과 열의를 보인 분으로 김두봉과 최현배를 들 수 있다. 먼저 김두봉은 '김더 조선말본'(1934)의 '붙임'[附錄]에서 '좋은 글'이라 하여 가로 글씨의 私案을 제시하였는데 "홀림글씨"라 하여 필기체를 고안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닌가 한다.¹¹⁾

'글자의 혁명'(1947)의 머리말에 의하면 최현배는 1922년 여름에 한글 가로글씨에 대한 私案을 강연한 일이 있고 이어 東亞日報에 발표하였다고 한다. 金允經(1937)에는 1926년(11월 18일과 19일)에 朝鮮日報에 실린 최현배의 가로글씨가 소개되어 있다. 특히 그는 함흥 감옥에서 가로글씨를 연구하여 광복 뒤에 그 결과를 위에 든 '글자의 혁명'에 발표하였고 1963년에는 '한글 가로글씨 독본'을 간행한 바 있다. 가로글씨에 대한 최현배의 집념과 신념은 1955년에 '한글의 혁명'의 개정판을 내면서 쓴 '고친 박음의 머리에'의 첫부분과 끝부분에 잘 나타나 있다.

내가 함흥 감옥에서 한글 가로글씨의 수십 년래의 연구의 끝맺음을 얻어 놓고서, 이것을 나의 목숨의 대가로서 바깥 세상에 전달하여, 뒷사람의 참고에 바치며, 또 실시되는 날이 있기를 기원하여.....

1954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나는 큰 희망과 한결같은 정열을 가지고 이 책의 둘째 박음을 내면서, 우리 나라에 글자의 혁명이 하로 바빠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배달 겨레의 새 문화의 비약적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여 마지 아니한다.

아마 가로 풀어쓰기에 대한 관심이 가장 고조되었던 것은 지난 20년대와 30년대 전반이 아니었던가 한다. 이 시기에 이필수와 金碩坤의 案도 발표되었지만 조선어학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어 회원들에게 私案을 제출하게 한 일도 있었고 1936년 11월의 임시총회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한글의 原字形을 유지한 活字體를 채택하기로 결정을 보기도 하였다(김윤경 1937 참고). 1937년 초에 간행된

10) 1912년의 '조선어강습원'의 '익힘(예)주(는)글'은 縱書로 되어 있고 적힌 도장은 '周時經'이라 되어 있음을 보아 修了證書에 '가로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1913년으로 추정된다. (1)의 사진은 최현배(1970)에서, (2)의 사진은 '新生'(2권 2호, 1929)에서 볼 수 있다. 이기문(1976) 첫머리에 轉載한 바 있다.

11) 이 책은 1922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날적'이라 하여 速記體도 제시하였다.

‘한글’ 5권 1호부터 겹표지에 “한글”의 가로글씨가 나타나게 된 것은 이 결의의 한 결과였다. 1936년 10월 28일에 간행된 조선어학회의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의 索引에 이 가로글씨가 쓰인 것을 보면 위의 결의가 있기 전에 이미 이 안이 학회에서 어느 정도 공인되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광복 이후에도 가로 풀어쓰기의 문자 개혁 운동이 한 때 힘을 얻는 듯이 보였다. 그것은 주로 타자기 등이 보급되면서 한글의 글자 모양이 기계화에 적합하지 않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최현배(1947)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도 이것이었다. 그러나 가로 풀어쓰기는 학계나 사회에 넓은 지지 세력을 얻지 못하였다. 가로 풀어쓰기 주장의 주된 근거는 모아쓰기가 기계화에 큰 불편을 준다는 것이었다. 이 불편은 컴퓨터의 출현으로 많이 가셔졌으나, 그래도 아직 문제가 아주 해소된 것은 아니다.¹²⁾ 그러나 앞으로 기계화가 더욱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소될 날이 올 것으로 믿는다. 기계화를 위해서 글자의 모양을 바꾸는 것은 “마치 구두에 맞지 않는다고 병원에 가서 발을 수술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이기문, 1968)

6

지금까지 한글과 관련하여 지난 백 년 동안에 있는 일들을 더듬으며 한글의 오늘의 형편을 가늠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세계 학계가 한글을 일찍이 인류가 만든 가장 좋은 문자 체계라고 인정하게 된 것이 마음을 호뭇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논증이 외국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점이 못내 아쉬움을 느끼게도 하였다. 오랫동안 우리 나라 학자들이 연구해 온 것이 그 밀반침이 된 것은 사실이었으나, 막상 아귀를 짓는 일을 남의 손에 맡기고 만 것이다.

한편, 19세기 말엽부터 한글 체계의 확립과 그 개선을 위한 여러 갈래의 노력이 이루어졌고 때로는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대체로 좋은 방향으로 매듭이 지어진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그런데 한글 체계의 개선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들을 통틀어 볼 때, 회람·로마 알파벳과 한글의 차이점들을 곧 한글의 단점으로 여겨 한글을 알파벳과 가깝게 고치려는 경향이 드러난다. 이것은 결국 한글을 회람·로마 알파벳의 亞流로 만들려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경향을 극단적으로 보인 것이 가로 풀어쓰기의 주장이다. 縱書보다 橫書가 좋다는 생각, 음절로 모아쓰는

12) 최근에도 컴퓨터 전문가로서 가로 풀어쓰기를 주장한 예가 있다. 박양춘(1994) 참고.

것보다 풀어쓰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다름 아니라, 회람·로마 알파벳을 문자의 이상으로 삼은 데서 나온 것이다. 한편으로는 한글을 위대한 문자라고 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그것을 알파벳에 가깝게 고쳐야 한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순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한글의 장점은 더욱 살리고 단점은 고쳐 나가는 것이다. 한글은 縱書도 할 수 있고 橫書도 할 수 있다. 이것은 회람·로마 알파벳이 따를 수 없는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 장점은 앞으로 문자 생활이 다양해질수록 더욱 빛나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음절로 모아쓰는 것도 결코 흠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앞에 놓인 긴 영어 단어나 독일어 단어를 읽으려 할 때, 어디어디서 음절로 끊어야 할까 망설여진다. 그러나 한글은 이미 음절로 모아썼으니 읽는 데 아무 불편이 있을 리 없다. 음절로 모아쓰는 것이 불리한 점이 더러 있다 해도, 그것이 가지는 유리한 점을 생각하면 조금도 끌릴 것이 없다.

우리는 한글의 특징은 살리면서 그 모자라는 점을 보완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모습을 존중하되 더욱 좋게 고치는 슬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모든 문자는 實用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니, 실용의 편의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면 학계와 사회 전체의 동의를 얻어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여러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 체험을 통하여 얻은 생각을 모아서 한글의 개선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 개인적인 문자 생활에서 느낀 두 가지 사실만 간단히 적기로 한다.

첫째, 문자의 모양을 더욱 다듬어야 할 것이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에는 글자가 이렇게 깨알같이 작아지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신문이나 사전을 보면서 “홍”인지 “홍”인지 “홍”인지 도무지 식별이 되지 않아 한참 들여다 볼 때가 가끔 있다. 지금까지도 한글 字體의 개량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이루어져왔음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둘째, 위에서 검토한 여러 문제 중에서 당장 문자 생활에서 부딪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고유 명사 표기법이다. 이것도 서양의 영향을 받은 사고 방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를 식별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고 느낄 때가 자주 있다. 한글의 경우에 새삼스럽게 大文字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것은 窮餘之策은 될지언정 最善策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종래 쓰다만 결줄이나 밑줄을 긋는 법은 번거롭기 짝이 없다. 좋은

제안이 나오기를 기다려 본다.

참 고 문 헌

- 姜信沆(1987), 訓民正音 研究, 서울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權惠奎(1923), 朝鮮語文經緯, 서울 : 廣文社.
- 김두봉(1916), 조선말본, 서울 : 新文館.
- _____(1934), 김더 조선말본, 서울 : 滙東書館.
- 金敏洙(1973), 國語政策論, 서울 : 고려대학교 출판부.
- 金允經(1937), 한글 가로쓰기의 史的 考察, 한글 5.2.
- 박양춘(1994), 한글>ABC, 서울 : 의학출판사.
- 安自山(1926), 諺文의 淵源, (日文), 朝鮮史學 1.
- 俞萬根(1977), “國語 醇化를 위한 國語 發音의 重要 問題”, 應用言語學 9.1.
- 李家源(1994), “訓民正音의 創制”, 洙上古典研究 7.
- 李基文(1968), “漢字 問題의 本質”, 새교육 170.
- _____(1970), 開化期의 國文 研究, 서울 : 一潮閣.
- _____(1976), 周時經全集, 서울 : 亞細亞文化社.
- _____(1988), “安自山の 國語 研究”, 周時經學報 2.
- _____(1989), “독립신문과 한글 문화”, 周時經學報 4.
- _____(1992), “訓民正音 親制論”, 韓國文化 13.
- 李崇寧(1949), “母音調和 研究”, 震檀學報 16.
- 李鍾極(1937), 모던 朝鮮 外來語 辭典, 서울 : 漢城圖書株式會社.
- 이필수(1922), 鮮文通解, 서울 : 漢城圖書株式會社.
- _____(1923), 정음문전, 서울 : 조선정음부활회.
- 주시경(1909), 국문초학, 서울 : 博文書館.
- _____(1910), 國語文法, 서울 : 博文書館.
- _____(1914), 말의 소리, 서울 : 新文館.
- 최현배(1937), “가로 글씨의 理論과 實際”, 한글 5.2-5.
- _____(1942), 한글갈, 서울 : 정음사.
- _____(1947), 글자의 혁명, 서울 : 정음사.
- _____(1963), 한글 가로글씨 독본, 서울 : 정음사.
- _____(1970), 한글만 쓰기의 주장, 서울 : 정음사.

- Bolinger, Dwight(1968), *Aspects of Language*, New York : Harcourt, Brace & World.
- Burling, Robbins(1992), *Patterns of Language*, San Diego : Academic Press.
- McCawley, J. D.(1966), Review of Yamagiwa 1964, *Language* 42.1.
- Reischauer, E. O., J. K. Fairbank(1960), *East Asia : The Great Tradition*, :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 Sampson, Geoffrey(1985), *Writing System*,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 Scott, J.(1887), 언문말칙, *A Corean Manual or Phrase Book*, Shanghai.
- Underwood, H. G.(1890), 韓英文法,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Yokohama : Kelly & Walsh.
- Vos, Frits(1964), *Korean Writing : Idu and Han'g'ul*, Yamagiwa(1964).
- Yamagiwa, J. K.(1964), *Papers of the CIC Far Eastern Language Institute*, The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